

光復

1775일

1947. 9.1
~
1948. 12.31

光復

1775 일

이중근(李重根)편저

中

常州大学图书馆
藏书章



한국

- 입법의원 제133차 본회의.
 - 중앙선거위원 8명 선출.
- 서울시, 곡물용 말과 되를 9월 1일부터 리터제로 바꿈.
 - 서울시가 조선도량형제도를 미터제로 고치고 종래 사용하던 곡물용 말과 되를 사용을 금지시킴. ① 폐지대상은 곡물용(1되, 5升, 1升, 5合, 1勺, 5勺) ② 새로운 용어: 곡물용 20리터(구 약 1되 1升 8勺), 곡물용 10리터(구 약 5升 5合 4勺), 곡물용 2 리터(구 약 1升 1合 8), 곡물용 1 리터(구 약 5合 5勺 4), 곡물용 2데시리터(구 약 1合 1勺), 곡물용 1데시리터(구 약 5勺 5)
- 이승만, 웨드마이어 내한 환영 담화
- 장택상 경무총장, 각 경찰서에 “대민업무 친절” 지시 및 학원내 좌익교원 검거 언명.
- 재무부, 대부·당좌대월의 허가한도액 확장 실시.
 - 대부 당좌대월을 10만원 제한액을 9월 1일부로 확장하여 시행. 시중은행의 대부한도를 50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선인 기업체에 대한 용자는 200만원까지 이재국(理財局)에서 관리하도록 조정.
- 중앙물가행정처, 9월 1일부터 11월까지의 석탄배급가격 결정고시.
 - 중앙물가행정처가 상무부와 협의한 3개월간의 석탄배급가격은 조선산 무연분탄(1톤) 1,850원, 경주 및 울산탄(1톤) 1,800원, 조선산무연정괴탄(1톤) 2,050원, 수입탄(1톤) 1,200원

북한

- 혁명자유가족학원 입원식.
 - 입원수는 304명. 교사 신축 기공식은 9월 10일, 정식 개원식은 10월 12일.
- 학생절(學生節) 발표.
 - 1946년 2월 8일, 임시인위는 민주개혁에서 인민교육 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당면과업의 제8항과 9항으로 “교육제도의 민주주의적 개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함. 이에 따라 교과서 편찬집단이 조직되어 모든 교과서를 한글로 만들고, 수학은 외국의 것을 번역했으나 국어·역사·지리 등은 한국의 현실에 맞게 새로 편찬함. 인민교육의 기본 방향과 시책은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및 ‘20개조 정강’에서 제시. 1946년 12월 18일, ‘북인위 133호 결정’에 따른 새로운 인민교육제도의 선포로 학교체제와 교육제도를 개선함.
 - 1947년 9월 1일, 인민학교·중학교의 학년 단축, 학령전 아동교외교육을 위한 유치반 신설, 고급중학의 창설, 기술교육의 진흥, 야간학교·직장학교·성인교육기관 등의 동일한 자격부여 등의 시책들이 이어짐. 이에 따라 북한의 교육체

9월 1일

陰 7. 17, 癸未일
월요일

계는 ① 유치반(1년, 만6세)-인민학교(5년)-중학교·기술학교(3년)-고급중학(3년)·전문학교(3~4년)-대학(4~5년)·교원대학(2년)-연구원(2년)으로 되는 학교교육체계와 ② 한글학교(4개월)-성인학교(2년)-성인중학(3년)-직장기술학교(3년)-직장전문(3년)-대학에 이르는 직장 및 성인교육체제로 정비됨(이하 표 포함,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320쪽).

△ 학교수 증가와 교육망 정비 현황(1947년말 현재)

구분	학교명	학교수	학생수	
정규교육	고급전문대학	대학	6	6,500
		전문학교	57	28,000
		고급중학	80	26,800
		혁명자유가족학원	1	1,335
		소계	144	62,635
	중등교육기관	중학	410	158,000
		여자중학	184	57,800
		기술학교	28	9,700
		소계	622	225,500
		인민학교	3,008	1,298,500
	소계	3,774	1,586,635	
성인교육	성인학교	150	8,000	
	성인중학	95	11,000	
	직장기술학교	7	2,000	
	직장전문학교	3	400	
	한글학교	52,000	7,990,00	
	소계	52,255	8,021,400	
합계		56,029	9,598,035	

*출처: 순간복조선통신(1947), 12월 하순호 No.16.

-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연설.
- “생산 합작사를 조직할 데 대하여”

한국

- 미국 사법제도 시찰단 귀국.
- 오후 3시, 대법원대법관 이상기(李相基)와 서울지방심리원장 장경근(張暲根)이 3개월에 걸친 미국 사법제도의 시찰을 마치고 귀국. ① 형사소송 절차 및 무료 변호인제도 ② 미국법의 준법정신 중시 태도 ③ 국민자율적 법률 감시 문화 등을 귀국 소감으로 피력.

9월 2일

陰 7. 18, 甲申일
화요일

- 서민주택대책연합회, 서민층 주택문제 토의.
 - 시내 남궁장에서 각 정당 대표 20명이 모여 신당동 적산주택 명도령에 대한 대책 및 일반 서민층의 주택건설문제에 대해 토의함.
 - 웨드마이어, 입법의원에서 조선방문 소감 연설.
 - 하지 중장의 소개, 김규식의 환영사에 이어 조선을 방문한 소감.
- “조선에 관하여는 타국의 권리와 욕망이 없지도 않다. 이 장애만 제거한다면 조선의 목적은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앞으로 조선의 제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 체재 중 여러분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본인에게 협력해 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
- 입의 제134차회의.
 - 미곡수집령 토의, 수집대상의 한계규정을 반대하는 식량 당국의 의견 청취하기로 결정.
 - 전 일본인 농지 처분과 신한공사 해체에 관해 토의하고, 적산대책위원회에 회부하여 법안을 기초하도록 결정.
 - 프라우다지, 미소공위의 미국측 태도 비난
 - 헬릭과 안재홍, 법령90호, '지정가격공포문제' 강조 경고문

북한

- 중앙과 각 도시에 도시 경영부 신설.

국제

- 중국 외무부, 미국의 조선문제에 관한 4대국 회의 개최 제안을 지지.
 - 중국 외교부가 조선문제에 관한 워싱턴 4대국 회의 개최를 제시한 미국 측 제안에 수락 의사 표명.
- 타스통신, 미군의 소련장교 억류와 석방거절 사실 보도.
 - 타스 통신의 보도, “프라우스키 육군 소좌는 8월 6일 조선 내 미소점령지 경계선을 넘어서 해수욕을 하다가 남조선의 미군에게 억류되었다. 미군 당국은 그를 석방하기를 거절하였다.”(런던발 UP)

한국

- 미소공동위원회, 제57차 본회의 개최.
- 법률 제5호, '입법의원 대의원선거' 공포.
 - “국민으로서 만 23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입법의원 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국민으로서 만 25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연령의 산정은 선거기일 현재로 함.”
- 공보부, 미국무장관대리 로베트의 통첩 전문 발표.
 - 공보부가 로베트 명의로 소·영·중 3개국에 전달된 신통첩의 전문을 발표.

9월 3일

陰 7. 19, 乙酉日
수요일

1947년 8월 25일부로 몰로토프에 보낸 로베트 서한에 동봉된 조선에 관한 미국의 제안에는 ① 남북 양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임시입법관 선거 실시(보선을 기초로 한 각 정당이 참여하는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 ② 임시지역의 입법관을 인구비율에 의해 정하고, 통일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국립 입법의원 서울에 구성할 대표를 양 지역에서 동시에 선출할 것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미대통령특사 웨드마이어 장군 조선을 떠남.
- 여운형 살해범 한지근 숙소(신당동 한현우 집) 검중.
- 건설학생총연맹 등 전국학생통합준비위원회 조직.
 - 건설학생총연맹 등 8개 학생단체와 각 대학대표들이 시내 운현궁에서 회합하고 전국학생통합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학생단체의 통합운동 전개.
- 조병옥, 충북진천군 좌익계열의 소요사건 진상 발표.
 - 지난 8월 28일 충북 진천군 관내 이월면에서 발생한 우익 신창현과 좌익 김차복 간의 언쟁에 국민회원(國民會員) 수십 명이 김차복을 구타한 것이 발단이 돼, 남로당원 등 좌익계열 200~2,000여 명이 31일까지 경찰지서를 포위하고, 우익 신학군 외 3명의 집을 습격하고 파괴한 난동으로 31일 오후 7시 현재, 사망 2명·중경상자 59명·가재 파괴 19건, 피해액 21여 만원 발생.
- 좌우합작위원회, 신한공사 해체에 관한 러취 군정장관의 조치를 지지하는 담화.
 - “전 일본인 소유의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 분배하도록 그 처분규정을 제정하고 신한공사의 해체를 요구한 러취 장관의 지시는 농민의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적의한 조치이다.”
- 중앙물가행정처, 최고판매가격제 실시 취지 고시.
 - 중앙물가행정처가 지정가격제를 실시한 이래 일부 상인들이 물자를 감추거나 공장을 휴업하자 “최고가격의 적용은 주로 정부에서 배급된 원료로 생산된 물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라며 ‘취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

북한

- 김일성·김두봉, 소련 대일전승기념일 즈음하여 소련군 장교에게 축하문.

국제

- 소련의 조선문제에 대한 제안 거부에 대비한 미국점령정책입안 계획.
 - 소련 측에 제안한 조선문제에 대한 미국의 4개국 회의 제의가 거부될 때 미국이 남조선에 취할 정치적·경제적 발전 계획안이 미국 언론에 보도됨.

한국

- 입의 제135차 본회의, 4국회의에 조선 참석 요청 의결.
 - 대일강화회의에 조선의 참가를 미·영·중 3국에 요청하여 중국 외교부장으로부터 “특별 유의하겠다”는 요지의 회답을 공개.

9월 4일

陰 7. 20, 丙戌日
목요일

- 미국무부에 유엔 또는 4국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여 발언권 요청할 것을 결의.
- 입법위원의 결의문: “금반 미국무부에서 조선문제에 관하여 미·소·중·영 4국 회의를 9월 8일 워싱턴에서 개최하여 일절 해결을 구하기로 한 제안에 관하여 본원 의장 이하 의원 일동은 만공(滿空)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미국무부에 향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여시(如是) 회의는 한국과 세계적으로나 관계된 문제의 해결 여부뿐 아니라 한국민족 3,000만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합이니 만치 종래의 예로 당사자를 치지도외(置之道外)할 것이 아니오(이하 생략).”
- 브라운, 소련측의 전조선임시인민회의 창설안 반대 성명서 발표.
 - 지난 8월 12일 미측의 제안에 대해 8월 26일 스티코프가 공위조선인자문기관으로 ‘전조선임시인민회의’의 창설을 제의한 데 대해 미측의 브라운 수석대표가 거부 의사를 표명. “소련측의 제안이 협의기관과 유사한 것이나 공동결의 제12호에서 선포한 것과 상이하고, 1,550만 회원을 가진 남조선 내의 주요정당단체를 제외하고 좌익을 압도적 대다수로 정치적 상황을 전환하려는 것이니 수용할 수 없다.”
- 이승만, 남조선 총선거에 대비하여 우익정당 대표자들과 회합.
 - 오전 10시, 마포숙사에서 우익정당 및 단체의 대표자를 초청하여 남조선 총선거에 대비하여 회담. 참석자는 한민당(김성수, 장덕수), 독촉국민회(백남훈, 명제세), 민통(강인택), 민대(최규일, 박재영), 여자국민당(황현숙, 정현숙), 독촉애국부인회(박순천), 독촉청총(이성주, 백석기).
- 조선주둔미군사령부 정보국, 타스통신의 소련 장교 억류설 부인.
 - “남조선에 소련장교 1명이 억류되어 있다.”는 타스통신 보도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함.
 - * 미군 정보국은 하지 중장이 북조선 소련사령관으로부터 소련장교 프라우스키 소좌가 1주일 전 38선을 넘어 남조선으로 간 후 귀환하지 않았다는 문의서를 받고 8월 23일 프라우스키 소좌의 사진 인상을 요청했으나 소련측이 아직도 회답이 없다고 부언.
- 헬믹 군정장관대리, 보통선거법서명 등 당면문제 기자 회견.
 - “본관은 러취 군정장관을 대리하여 입법위원으로부터 회부된 보선법(普選法)에 3일 서명하였다. 금반 보선법에 서명한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민주주의 정부수립에 큰 단계의 진전을 이룬 것이며 가장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통과한 것으로 본다.”

북한

- 소련 몰로토프 외상, 미 로베트 제안 거부.
 - 8일에는 4대국 회의안도 거부.

국제

- 미국무부 대변인, 미국의 4대국 회의 개최안에 대한 소련의 회답을 기대한다고

9월 5일

陰 7. 21, 丁亥일
금요일

한국

- 입법의원 제136차 본회의에서 공연법 제정 등 토의.
 - 군정장관이 재의를 요청한 미곡수집령에 대해서는 식량대책위원회에 회부, 심사 보고하도록 조치.
- 국민의회, 제43차 임시대회 개최(9. 1-9. 5).
 - 창덕궁 인정전에서 대의원 300여 명의 출석하에 1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여 5일 오후 5시에 폐회. 첫날 조소앙의 개회사와 김구의 치사가 있은 후 경과보고에 이어 긴급제의안으로 “미국이 제의한 4대국 회의 개최의 절대 지지 및 남조선 단독정부를 수립을 위한 남조선총선거의 중지 결의”를 통과시키고 제 1일은 휴회함. 2일째, 속회 벽두에 이승만의 치사와 경과보고, 조직대강 및 임정대책·외교문제 등 당면정책 토의함.
 - 부서(6일 발표)는 주석 이승만, 부주석 김구 이하 국무위원(조소앙 유림 등 12명 연임, 김승학·김성수 2인 신임) 및 정무위원 17명으로 결정.
- 미소공동위원회 제59차 본회의 개최.
 - 미소공동위원회 제59차 회의는 4일 오후 3시 스티코프의 사회로 공동보고서 작성과 기타 미소 양측의 신제안을 놓고 토의함. 회의는 이날 오후 5시 일단 산회했다가 7시 30분 속개하여 5일 오전 1시에 폐회.
 - 공동보고서 작성의 미완으로 5일 제59차 본회의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오전 회의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회의를 열고 계속 토의.
- 태서관 불량주 사건.
 - 지난 1일 서울 종로 요리집 태서관(太西館)에서 음주한 회사원 김영중(金永仲, 45)·조흥은행 동대문지점원 이준담(李俊潭)·다동(茶洞) 삼화권번 기생 최농옥(崔弄玉)·아현동 거주자인 조인목(趙仁穆) 등이 변사한 사건이 발생함. 경찰의 조사 결과, 태서관에서 마신 술로 인한 것으로 판명됨. 태서관 대표자(兪今善 李兢載 金顯光)는 을지로 4가에 해림양주조장(海林洋酒造場)이라는 허가없는 밀조장을 만들고 정종을 만들어 팔. 5일, 수도경찰청에서는 양조장관계자와 태서관 관계자를 전부 구금하고 1개월 영업정지했으나 취조 결과에 따라 영업폐쇄도 불사한다는 방침.
- 수도경찰청, 좌익 혐의 교원 약 100명 검거.
 - 수도경찰청이 8월 중순경부터 서울 각 초등학교·중등학교 교원들 중에서 조선교육자협회에 가맹한 교원들을 다수 검거하고 취조. 5일 현재, 검거 인원은 약 100명으로 좌익단체에 가입하여 미곡수집 등을 반대한 혐의.
- 이승만, 국민의회에 보선법에 의한 총선거 단행 메시지 전달.
 - “국민의회에서 국권 회복을 촉진키 위하여 개최하신 이때에 내가 진참(進參)

치 못하게 되는 것을 유감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김(金) 주석과 나는 미소공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의대로 정부수립을 최종최급의 문제로 알고 민족대표대회(民族代表大會)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외정세가 순승되어 미군정과 협동으로 조속한 시일에 성공될 수 있는 희망이 보이므로 우리 민족 전체의 통일단체로서 총선거를 실행하여 국권 회복하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 장택상 수도경찰청장, 봉괴도로 수선 관련 담화.
 - 봉괴된 시내 도로의 수선과 관련하여 “경찰은 반강제적으로 시민이 협력을 얻어 도로수선에 착수하겠으니 시민 제위는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발표.
- 제24군단사령부 맥트로니 소좌, 로마교황청 사절 내한 언명.
 - 교황청의 초대 공사로 15일 번 신부가 조선에 파견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교황청 대표가 조선에 파견됨은 실로 경하할 만한 일이다. 이는 조선을 일개 독립국가로 처음 인정하는 것인 만큼 천주교인만의 영광이 아니라 조선국가의 영예이다.”
- 주서울 중국 영사, 입법의원에서 조선문제에 관하여 중국 측의 입장 천명.
 - 류 중국영사(劉馭萬)가 입법의원을 방문하여 약 40분간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인의 한 사람으로 조선에 부탁하는 바는 남조선과정(南朝鮮過政)이란 남자(南字)와 과정(過政)이란 2자를 없애고 하루바삐 통일조선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 중국의 조선에 대한 태도는 쑨원(孫文) 선생의 정책인 조선의 독립 없이 중국의 독립 없고 세계의 해방 없다는 것이다.(이하 생략)”라는 요지로 연설함.
- 한국민족대표자대회, 4국회의에 조선인 대표 참가 요청하는 전보 발송.
- 서해안 간사지 개척 착수, 총공사비 4,000여 만원.

북한

- 김일성, 북조선인민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결론.
 - “국가 량정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제

- 미국무부, “4대국 회의 개최에 대한 소련 측의 회답이 없다.”고 공식 발표.
- 챔버린, 「월스트리트저널」 지에 조선문제에 관해 논평.

한국

- 김병로 등 7인, 민족국가를 염원하는 담화 발표.
 - 김병로 등 7인(金炳魯, 金乎, 金元容, 安在鴻, 朴容羲, 李克魯, 洪命憲)이 공동성명,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는 오직 하나의 뚜렷한 목표가 있다. 그 목표란 민족국가로의 독립이다. 지금 우리들은 민족독립의 절대적 사명을 다시 한 번 선양코자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을 취하여 한 기치아래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하

9월 6일
陰 7. 22, 戊子일
토요일

루바삐 큰 노력으로 장성하여 절대적 사명을 완수하려하니 민족독립을 염원하는 동지여 우리와 한데 뭉쳐 함께 나아가자.”

• 상무부, 인가된 수출입물자 목록 발표.

- ① 수입인가물자 목록: 미국 곡물 소맥분 고무(생고무) 면화(原綿, 면직물) 비료 석유 및 석유가공품 원피(原皮) 성냥원료 전구원료 식물류 재목제재 대나무(竹) 마닐라마 펄프 신문지 제지코틀 코크스강(鋼) 알루미늄철판 원모 소금 탄소 목공업용화학용품 면설(綿屑) 모설(毛屑) 염료 초자(硝子) 시멘트 양침(洋針, 수공용 및 재봉침) 전기용품 기구 화물자동차(일톤급 이상) 의약 ② 수출인가물자 목록: 해산물(寒天 海苔 乾魚 魚肝), 과일-사과 배 밤 잣, 광석 및 광물-모리브덴 망강 코발트 석면 운모 흑연 아연광 녹주옥 후오라이트 규토 황철광 모노사이트 석면, 수공품-칠기 초자기 자수품 공예품 도자기, 견, 피혁, 동, 인삼 ③ 인가수출품목 제외품: 중석광(정부 직접 관리)

• 중앙경제위원회와 상무부, 무역제한조치의 일부 완화 결정.

- 중앙경제위원회와 상무부가 확인신인장(確認信認狀)을 선수 조건부로 하는 대외무역 철폐에 대한 업계의 요망을 수용하여 확인신인장을 갖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출을 허가하는 제안 조처의 일부 완화를 결정함.

한국

- 대동학생단주비위원회 결성.
- 전국건설학생연맹, 전국학생통합주비회와 무관하다고 언명.
 - 신문지상에서 전국건설학생연맹이 전국학생통합주비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보도하자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함.

북한

- 북로당 간부(중앙검열위원) 김용범(金溶範) 병사.
- 각 도 선전관계 책임자 회의에서 김일성 훈시.
 - 각 도 선전관계 책임자 연석회의에서 “민주조선 건설에서의 선전 일군들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
- 김일성 대학 신축 착공.

국제

- 일본무역국, 일본 상품의 최대 소비국이 조선이라고 발표.
 - 일본 무역국, 조선이 일본 상품의 최대 소비국으로서 미국을 대신하고 있다고 발표함. 북조선이나 만주로부터 밀려오는 피난민으로 인해 남조선은 식량부족을 일본산 하기 소재의 수입으로 보충함.

9월 7일

陰 7. 23, 己丑일
일요일

한국

- 공위, 제59차 본회의 개최 이후 휴회 중이라고 공개.
 - 4일부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리던 미소공동위원회가 6일 이후에는 휴회.
 - 미소공위의 미측 대변인은 4대국 회의 개최 제안에 소련 몰로토프가 4일 이를 정식 거부하고, 미소공위로서 해결케 하자는 요청이 미국무장관 마샬에게 도달했다고만 할 뿐 “공위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함.
- 미 제24군단 당국, 조선상륙 2주년기념 성명 발표.
- 민주통일당·민중동맹 등, 합당연락준비위원회 공동성명 발표.
 - 민주통일당·신한국민당·민중동맹 등이 합당작업을 추진 중이며, 신당 발족시 흥명회가 당수. 이날, 각 당 대표는 개인 명의로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는 오직 뚜렷한 하나의 목표가 있다. 그 목표란 무엇이나? 민족국가로의 독립이며 정치적 경제적 완전자주를 확보하는 독립이니 이 목표를 향하여 용왕매진(勇往邁進)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절대적인 사명이다.”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이승만, 한민당 등 각 정당 대표자들과 제2차 간담회.
 - 오후 1시 마포숙사로 각 대표를 초청하여 제2차 회의. 총선거 실시할 때에 우익진영이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단일정당·정책 수립을 토의.

9월 8일

陰 7. 24, 庚寅日
월요일

국제

- 맥아더사령부, 5월중 남조선 행정보고서를 육군부에 제출.
 - “① 5월중 남조선 입법의원은 미군점령지대내에 있어서의 민주주의화 과정을 확고히 하는데 있어 착착 진전을 보이고 있다. ② 원료 숙련노동자 기계 및 부분품 부족으로 공업은 의연 정지되고 있으나 생사생산은 1월에 1만 9,412파운드이던 것이 4월에는 일약 8만 8,900파운드로 증가되었다.”
- 소련, 조선문제에 관한 4대국 회의 개최안 거부.
- 모스크바 방송, 몰로토프 외상의 4대국 회의 거부 의사 방송.
 - “몰로토프 외상은 9월 4일 마셜국무장관에 대하여 미소공동위원회도 결코 실현 가능한 건의안을 작성해 낼 가능성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므로 동 제안은 득책이 아니라는 내용의 각서를 발송하였다. 몰로토프외상의 회답은 미소공동위원회가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협정을 실천하는데 실패한 고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 로버트 로베트 국무장관대리의 각서에 대한 것이다. 몰로토프 외상은 또한 미소 양국 점령지대의 선거를 실시하고 지대별의 임시입법기관을 설치하자는 로베트의 제안도 각하하였다.”

한국

- 경기도, 미곡 운반과 도정·출하기관의 지정 운영.
 - 경기도, 미곡운반과 출하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정부대행기관과 미곡 수집소 및 식량배급소 외에는 미곡 운반이나 취급을 금지시키고, 각 정미소에

9월 9일

陰 7. 25, 辛卯日
화요일

서의 미곡 도정도 정지조치.

- 브라운 공위 미측대표, 공위의 협의성과에 대해 특별 성명.
 - 브라운 대표, 공위가 공동보고 작성문제와 4대국 회담 개최 여부 등으로 교착 상태이고, 그 진퇴는 UN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실토.
- 국민의회 독립노동당 소속 대의원 일동, 제43차 임시대회 불신 성명 발표.
 - 국민의회 독립노동당 소속 대의원이 제43차 국민의회를 불신함. 한독당 일당이 당독재를 모략하여 임정의 법통을 전단하여 회의에서 조직한 정무 및 법무 위원회, 기타 일체의 기구에도 참가하지 않는다고 발표.
- 민주의원, 조선문제 국제회합 대표 결정.
 - “금후 미국에서 개최되는 조선문제에 관한 국제회합에는 조선인 대표의 출석을 요청하되 그 대표로는 임병직·임영신 양씨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 스티코프, 몰로토프 회한 정식 발표.
 - 지난 8월 26일 미국무장관 마샬이 공위의 정돈상태를 해소하고자 소련외상 몰로토프에게 서한을 보내 4대국 회의 소집을 제의. 이에 대해 4일 몰로토프가 정식으로 이를 거부하고, 미소공위를 통해서 제의를 달성하자는 회한을 보낸 데 대해 이날 미소공위 소련측 수석대표 스티코프 중장이 덕수궁에서 정식으로 몰로토프의 서한 내용을 발표.
- 한국민족대표자대회, 총선거대책위원회 부서 결정 발표.
 - 한국민족대표자대회에서 총선거대책위원회 부서를 결정함(위원장 申翼熙, 부위원장 明濟世).

국제

- 김용중, 소련의 4대국 회의 거부 비난 성명.
 - “소련은 조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방해함으로써 조선민족의 자유독립 기망을 무시하고 있다. 나는 미국이 조선문제를 UN에 제출할 것을 제의한다.”
- 조선문제 유엔총회 상정 전망.
 - 워싱턴에서 조선문제가 UN에 상정될 것이라는 예측과 분위기 만연.

한국

- 입법의원 제139차 본회의.
 - 지방자치조직법안 상정.
- 48개 정당사회단체, 공위에 조만식의 자유 보장 건의.
 - 조선민주당·한독당·한민당 등 48정당 사회단체가 북조선의 조만식(曹晩植)의 자유보장을 요구함. 이날 48개 정당 사회단체는 미소공위 양측 대표에게 건의서 제출.
- 대검찰청서 사법, 검찰 등 기구개혁안 성안.
 - 대검찰청이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지방검찰청의 협력을 얻어 사법·검찰 기구

9월 10일

陰 7. 26, 壬辰일
수요일

의 민주화를 꾀하고자 기구개혁안을 입안함. 주요 내용은 ①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 ② 종래의 무제한이던 판사의 구류 갱신제도는 인민의 고통이 심하였던 실정에 비추어 이에 적당한 제한을 둘 것 ③ 판사·검사 등 사법직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제도를 설치할 것 ④ 배심재판제도를 채용하여 민간의 의사를 사법운영에 충분히 반영시킬 것 ⑤ 각 경찰서에 간이재판소와 간이검찰관을 둘 것 등.

북한

- 만경대학원(萬景臺學院) 기공식

국제

- 마샬, 미국의 대조선정책 언급.
 - “소련이 조선에 관한 4대국 회의를 개최하려는 미국이 제안을 거절한 것은 사실이다. 국무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소련의 회답을 연구중이다. 소련 통첩의 연구가 완료된 때에 취할 다음의 조치로는 중국·미국 등 기타 관계국과 더불어 정세를 토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 입의 제140차 본회의, 러취 서거로 애도 3일간 휴회 결정.
 - 장사 및 조의위원으로 황진남·김법린·김도연 등 3씨를 선정.
- 공위 휴회 계속.
- 러취 서거.
 - 지난 28일 러취 군정장관이 심장병으로 공덕리 미제34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병세가 악화돼 이날 오전 7시 58분 서거함(53세). 러취 소장은 1946년 1월 남조선 미군정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민주적인 과도정부의 형태를 갖춘 군정이양과 함께 입법·사법·행정 3권의 확립과 방미하여 조선원조문제에 진력함. 남조선과도정부에서는 러취 군정장관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각 관공서로 하여금 조미 양국기를 게양하고, 오후에는 일제히 사무를 중지함.
- 과도정부의 러취 장례 절차.
 - 러취 군정장관의 유해는 이날 공덕리 미육군병원으로부터 용산 제7사단 영현보관소에 안치됨. 과도정부측과 미군관계자측이 오전 각각 긴급회의를 열어 장례절차를 논의하고, 오후 2시에 양측 연석회의를 열어 남조선과도정부와 미군 연합장으로 국장에 준거해 거행하기로 결정. 장례위원은 입의의장, 민정장관, 대법원장, 공보부장, 경무부장의 5인. 운구위원으로는 입의의장, 민정장관, 대법원장, 경무부장, 통위부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승만, 김구, 오세창 등 10인. 국장의식에 준거한 연합장. 장례식은 14일 입법의원 의사당에서 일반 조문객의 조문을 받고, 16일 오전 중앙청 광장에서 발인식 후 시청 앞까

9월 11일

陰 7. 27, 癸巳일
목요일

지 윤구위원이 불안하는 대포차 행렬, 미군과 경찰 경비대가 군대의식과 예포를 올린 다음 김포비행장행. 항공편으로 도쿄에 도착한 후 배로 본국행.

- 러취서거에 대한 이승만과 김구의 담화 발표
- 러취 서거에 대한 하지와 안재홍의 조사.

目 김규식 입법의원 의장 조사

“군정장관 러취소장이 제34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수일 전에 다소 차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욕이 안심했더니 갑자기今朝 7시 58분에 서거하였다니 이 무슨 말이고 현단계에 있어서 장군은 우리 韓人의 자유와 독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분으로 모든 일에 협력하던 나로서는 이러한 진정한 친구를 잃어버린데 대하여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막대한 손실인줄 알고 이에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서울신문》 1947년 9월 12일

- 중앙선거위원회에 위원후보자 8명씩 추천.
 - 입법·행정·사법 3부문에서는 각기 후보자를 내정. 군정장관이 24명 중 15명을 중앙선거위원으로 임명. 위원후보자는 ① 행정부문: 최두선 한민당 동아일보사장, 김동성 무소속 합동통신사장, 오한영 무소속 의박, 백인제 무소속 의박, 김지환 무소속 교육가, 황태문 무소속 교육가, 오상현 한민당 안양지부장, 이승복 신한국민당. ② 사법부문: 이인 검찰총장, 노진설 무소속 대법관, 이종성 무소속 변호사, 현상윤 무소속 고려대학총장, 신태익 무소속 변호사, 최두선 한민당 동아일보사장, 최규동 무소속 교육가 외 1명. ③ 입법부문: 신익희 무소속, 박승호 독촉애부, 장면 무소속, 박용희 신한국민당, 김법린 무소속, 변성옥 무소속, 이활 한민당, 이갑성 무소속.
- 홍명희·안재홍·김병로 등 신당발기위원회, 부서 결정.
 - 오후 2시부터 민주통일당(民主統一黨) 사무실에 신당발기위원회의 제1회 회의를 개최.
- 한독당,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 실시를 주장.
 - “한국독립의 승인방법으로 미국의 제안인 국제연합 감시하에 남북통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케 하자 한 것은 매우 합리한 방법인 고로 UN총회에서 채택되어 실천되기 바란다.”

국제

- 해외 언론들, 조선문제를 사설로 대서 특필.
 - 「헤럴드트리뷴」, 「런던타임즈」, 「뉴욕타임즈」, 「이브닝스타」 등에 조선문제 논평.
- 중국정부대변인, 조선문제 해결에 중국은 성심을 다할 것 시사.
 - “만약 미소 양국이 조선문제 해결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선국민을

공정히 취급하며 또한 극동의 안정이라는 점에 감하여 태평양의 관계 4대국이 조선문제 해결에 관하여 협의하는데 합의를 얻기를 중국정부는 성심으로 희망하였던 바이다.”

- 미육군부 민정국, 1주일 내 조선에 교원강습소 설치 계획 발표.

한국

- 과도정부정무회의, 남방 억류동포 구출 대표 파견 결의.
 - 남조선선과도정부가 9월 정무회의에서 조선대표로 변호사·조사외교원·통역 등 3명을 파견하기로 결의. 전후 약 90일간의 남방 현지에서 억류된 동포 구출 활동을 추진할 방침.
- 영등포 일대 국민학교에 암약한 공산당원 체포.
 - 영등포지구 학원을 적화하려던 일당 10여 명이 12일 영등포서에 검거됨. 총책임자는 남로당원 김봉일(金鳳一)으로 영등포 각 초등학교 교원들을 포섭. 영등포국민학교 교원 윤종선과 강남국민학교 교원 류종봉, 우신국민학교여교원 노숙인, 은로국민학교 교원 차진중 등과 학원 세포를 조직함.
- 이승만 단정대비 3차 간담회 개최.
 -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 각 정당 단체 대표자들이 마포 이승만의 숙사에서 제3차 회담. 총선거 실시에 대비하여 중앙과 지방을 통하여 세포조직 구성 등에 관해 토의함.
- 헬믹, 미군정실시 2주년기념 특별성명 발표.
 - “금일은 남조선에 미군정이 실시된 제2주년 기념일입니다. 동시에 경애하는 군정장관 아처 엘 러취 소장의 뜻하지 않은 급서에 우리들 모두가 애도하는 제일(祭日)인 것입니다. 과거 2년간 미군정은 최초의 목적 완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① 모든 외국지배에서 벗어나 국제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독립 자주 조선을 건설하는 것 ② 조선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표하는 신조선 민주주의정부 수립을 보장하는 것 ③ 조선인에게 조선교육 및 산업의 부흥을 원조하는 것. 이상의 목적이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미군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적 위임 하에서 조선에 대한 약속을 가능한 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실행하여 왔다는 것을 조선국민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 수도경찰청, 청년단체 불법활동 취체.
 - 지난 11일 수도경찰청이 청년단체의 불법행동을 엄중 취조하겠다고 포고한 후, 12일 이날 충정로에서 대한건국전위대에 해산명령을 내리고 해체시킴.

9월 12일

陰 7. 28, 甲午일
 金요일

9월 13일

陰 7. 29, 乙未일
토요일

한국

- 각 정당 사회단체, 조만식의 신변보호 요청서 공위에 제출.
 - 조선민주당 등 46 정당 사회단체가 조만식의 유폐 감금을 즉시 해제하여 행동의 자유를 보장케 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미소공위와 주서울중국영사 및 영국영사에게 전달함.
 - 지난 7월 2·3일 양일간 평양에서 열린 미소공위에 참석한 브라운 소장이 조만식을 전후 3회에 걸쳐 4시간 요담함. 그 후부터 조만식에 대한 감시가 심해져 고려호텔의 조그만 방으로 옮기고, 둘째 아들 연창(25)과 사위 강의홍(康義弘, 32)의 출입을 금함. 보안서원도 종래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 식사도 매우 나빠져 소화기병에 의한 38도의 발열로 2주간이나 신음할 정도로 건강 악화.
- 조병옥 경무부장과 이인 검찰총장, 청년단체 불법행위 경고.
 - 이인 검찰총장도 '악질 청년단체원에게 철추 수술'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청에서 그간 일부 청년단원들의 포악한 행동에 대하여 누누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기개 청년단원들은 성군작당하여 경향을 횡행하며 인명을 살상하고 또는 사람을 납치 감금하며 금품을 강요 강탈하여 인심의 소란과 피해가 적심하다는 보고가 답지하는 바 이와 같은 흉악한 범죄행위를 하는 청년단원 기타분자의 동향은 당국에서 벌써 세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직접범죄 행위자는 물론 이런 행위를 묵인하거나 배후에서 은연중 교사 조종하는 단체 간부나 배후자까지도 일망 검거하여 일층 준엄하게 처단하고 발본색원적 철추수술을 가하도록 단단 준비가 되어 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일을 보거나 알거든 검찰이나 경찰에 구두 서면 전화로 알려주기 바란다."라고 강조.

북한

- 최초로 제작된 발성기록영화 '인민위원회' 상영 개시.

국제

- 임영신 등 조선대표단, UN 활동.
 - "우리는 UN총회가 조선의 즉시통일과 전 외국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은 미소 교섭이 완전히 정돈상태에 들어간 이상 조선문제를 자유로 공개석상에서 토의하는 것을 성원할 것이다."

한국

- 이승만, 9월 1일자 「뉴스위크」 보도 부인.
 - 이승만은 9월 1일부 뉴스위크 지에서 워싱턴 한인위원회가 '조선 주둔 미군 부대의 철퇴 요구'한 보도에 대해, "일부 인사들은 계속하여 고의로 오해 보도를 하고 있다. ... 이 불행한 정세에 책임이 있는 미국은 조선과 미국간 협력으로 외국점령이 제거될 때까지 조선에서 철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전하는 바의

9월 14일

陰 7. 30, 丙申일
일요일

조선문제를 UN총회에 제출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지지한다. 남조선정부가 총선거를 통하여 수립되는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국제간에 발언권을 가질 것이며 미국과 조선은 소련을 상대로 하는데 더욱 강력한 지위에 있게 될 것이다.”

- 홍명희 등 신당준비위원회, 제2회 정기전체회의 개최.
 - 홍명희를 준비위원장으로 하는 신당준비위원회가 오후 2시 민주통일당 회의실에서 제2회 정기전체회의를 개최함. 당명 작성에 대한 예비적 토의, 당원(발기인)범위 확대문제, 각 단체의 합동협의 표명문제, 지방조직문제 등을 토의.

국제

- 뉴욕 채류 입영신, 단정수립안 제시.
 - “조선 통일문제에 관한 미국의 태평양4개국 회의 개최제안에 대하여 소련은 이를 거부한만치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 단독 임정을 즉시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한국

- 경기도 당국, 미곡 자유판매와 운반 도정을 금지 결정.
- 노동부령 제1호, ‘미성년자노동보호법 시행규칙’ 공포.
- 노동부령 제2호, ‘미성년노동자의 교육 및 보건’ 공포

북한

- 흥남공업대학 개교.

국제

- 윌리엄 던소장, 15일 이내에 조선 군정장관으로 부임.

한국

- 러취 장례식.
 - 러취 군정장관의 장례식. 발인식은 오전 10시 중앙청 앞마당에서 엄숙 성대히 거행.

目 러취 장례식 취재 기사

10시 정각 미군군악대의 芻樂에 맞추어 현관문으로 성조기에 싸인 영구가 6명의 군인들 손에 들리워 나오자 군중은 일제히 기립하여 경의를 표하였다. 이리하여 영구는 식장 정면위에 놓이고 고 러취장관 부인은 그 옆에 앉았다. 식순에 따라 玄濟明의 찬미가에 이어 미군목사가 장엄한 목소리로 성경을 낭독하는 동안 고 러취 장관 부인은 그칠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씻었다. 고 장관의 빛나는 약력을 낭독하고 왓츠의 芻歌 기도를 올린 다음 미국국가 조선

9월 15일

陰 8. 1, 丁酉일
월요일

9월 16일

陰 8. 2, 戊戌일
화요일